

기독교학교의 성적평가, 이대로 좋은가?

김선요(기학연 연구위원,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평가의 의미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가치를 매기는 과정’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다. 영어의 ‘평가’를 의미하는 evaluation을 e-value-ation으로 풀어쓰면, 이 뜻을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는 관심의 선택이며 속성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적인 고려를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가치는 좋음과 나쁨, 옳고 그름, 그리고 미와 추를 따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 평가의 표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세계관에 내재된 가치에 기초하게 된다. 이러한 세계관은 인간에 대한 관점, 삶의 의미, 실재의 성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에 따라 평가의 과정, 강조, 그리고 판단이 달라진다.

과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는 삶의 표준에 있어서 다원성, 즉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상에 있어서 다원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다원주의는 학교에도 영향을 미쳤고, 학교 교육의 평가에 있어서도 다원주의적 접근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공립학교는 물론, 기독교학교에서조차 평가의 표준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교육 평가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냐보다 용이하게 측정할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데 몰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 평가절차는 학교의 필요를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학교가 평가의 요구에 급급(汲汲)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의 철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평가는 점차적으로 학교의 철학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성적표라는 평가의 창을 통해서 교육평가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왜냐하면 성적평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며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단순히 성적표의 내용을 바로잡아 평가논쟁을 마무리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평가에 대한 생각을 자극하고 명심해야 할 성경적인 원리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성경적인 원리가 세워지면 성적표는 물론 가정과 기독교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하고 창의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평가하는가?

“우리 아이 학교에서 잘 하고 있나요?”라고 묻는 한 학부모의 상투적인 질문에 대해 기독교 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네, 수학을 잘 한답니다. 지난 기말시험에서 B+로 상위 15% 안에 들었거든요.” 이러한 대응은 기독교학교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이긴 하지만, 기독교사로서 이러한 대응이 과연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교사는 학부모에게 학업성취도가 최우선 평가기준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부모로서 자녀의 수학능력 수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결코 학업성취도가 과연 학생의 전반적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평가는 목표에 이르는 수단이지 결코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평가

는 학교의 목표와 관련해서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를 조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평가는 교사로 하여금 가르치는 방식을 새롭게 고안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학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평가는 학습의 결과보다 과정으로 인식될 때 수정과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평가는 형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학교에서는 개인적 성취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혹은 전국 단위에서는 우리학교의 성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진정으로 뛰어난 것은 당연히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합리적인 우등생 집단은 국가적으로 유용할 수도 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아도 자기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교가 학업, 스포츠, 예능 혹은 다른 학교활동에서 신뢰할만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노력보다 성취도 중심의 평가가 성적표의 최우선 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성경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높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은 ‘똑똑한 학생’보다 꾸준히 노력하는 평범한 학생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주인의 반응은 다른 하인이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인들이 맡겨진 돈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에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성취했느냐를 근거로 평가하신다. 교사로서의 학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사는 재능과 잠재력을 지닌 한 개인적 인간으로서 학생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평가 역시 한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늘날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기독교학교의 성적평가 역시 경쟁적 상대평가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는 학생들은 오직 일등에만 최상의 가치와 의미를 둔다. 일등의 자리는 단 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두 사람이 일등을 차지할 수 있지만, 어떠한 조건을 붙여서라도 반드시 일등을 가려낸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일등의 가치와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 일등 앞에서는 2등과 3등도 상대적인 패배감을 맛보아야 한다. 이처럼 성적이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한 사람의 성취가 다른 사람의 희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주의적인 경쟁이 기독교학교의 평가기준으로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학교는 다른 사람과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학교에서 경쟁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경쟁이 학생들로 하여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동기를 유발 할 수도 있고, 운동경기에서 보듯이, 혹독한 경쟁이 놀랄만한 성공에 이르기도 한다. 때로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경쟁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성경에서도 경쟁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쟁이 오늘날 우리들이 학교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경쟁개념과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가? 앞에서 인용한 성경의 다음 구절인 25절에서 우리가 경쟁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씩지 않는 왕관’(승리)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는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써 이겨야하고, 탁월함에 있어서도 서로를 세우는 재능에 있어서도 탁월해야 함을 의미한다(고전 14:12). 경쟁은 남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그것은 항상 남보다 앞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사랑, 섬김, 그리고 다른 이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성경적 메시지에 대해서도 낮설지 않아야 한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왕관을 자기에게 씌워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네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7-8).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자신만 왕관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의의 왕관을 쓸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든지 절대적 평가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함께 일등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같은 원리로 기독교학교는 누구든지 함께 일등을 차지할 수 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절대평가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왜 평가하는가?

기독교학교에서 성적을 매기는 현실을 살펴보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나타난다. 현재의 성적 매기는 시스템은 한 학생의 수행에 대해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또는 A, B, C, D 혹은 F와 같은 문자 성적을 부여하고 있다. 표준적 등급화는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여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필연적으로 낫다고 보는 것이다. 성적이 기준이 되어 학생들에게 ‘지체자,’ ‘기대이하,’ ‘절망적,’ 혹은 ‘천부적’ 등과 같은 숨겨진 라벨이 붙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라벨이 일찍 붙여지면 그 학생은 재학기간 내내 혹은 그의 나머지 일생동안 자아-가치 형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성적인플레이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는가? 야고보서 2장 21절은 이 시험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으로써 아브라함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심판관으로서 그것이 옳다 혹은 옳지 않다고 선언하신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했는데, 그 때에도 마찬가지였다(출 16:4; 신 8:2; 13:3).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학생들을 시험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지 않다. 우리는 학생들의 가슴과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험하는 목적의 하나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다. 시험의 이러한 측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다르다. 그렇지만 유사점도 발견된다. 교사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을 능가하는 권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의 작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한다. 물론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은 이러한 교사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려들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앞에서 언급한 야고보서 2장 21절로부터 좀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첫째,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 대한 사전준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12장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다(12:2).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서 바라볼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그의 하인 엘리에셀(15:2)이었을 때에나, 하갈에 의해서 아이를 가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삭이 그의 상속자라고 가르쳤다. 이 아이가 약속의 아이가 될 것이며, 다른 아이는 아니라고 했다(17:15-21).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에서 이 약속을 지키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인내하시면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가르쳐왔던 바로 이 사실에 대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도록 시험한 것이다. 이 시험은 수년 동안 아브라함이 공부했던 것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testing)과 미혹(tempting)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지만, 미혹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미혹한 적이 없다(약 1:13). 사탄이 인간을 미혹할 때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정당화시키거나 아니면 꾸중하시는 자리에 계신다.

기독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때에도 동일한 성경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표준적 등급화가 시사하듯, 예를 들면 “80%의 학생은 통과하고 나머지 20%는 실패하도록”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나의 학생 가운데 좀 모자라는 녀석들은 실패하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은 A를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 중간에 들도록 충분히 어렵게 출제해야지.” 이러한 방식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운 단원의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시험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A를 받는다면, 모두가 학습을 잘 한 것이다. 만일 모두가 낙제했다면 아무도 학습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소위 표준적인 곡선의 어떤 모양에 기초하여 결과를 예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맺는 말

학교에 따라 강조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도’를 양성하는 데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학생들의 타고난 재능의 포장을 펼치고,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살롬(평안)을 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이고 개별적인 자율과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학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롬 12:2).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기독교학교의 평가는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평가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평가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의 행동과 성적에 대해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경계하도록”(딤후 4:2) 부름을 받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물론, 이를 평가하는 방법도 익혀 다른 사람의 학습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전통적 성적 매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 대안을 찾아보면 실로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